

## 정주영 '풍경의 얼굴' 전 낮익으면서도 기괴한 풍경들



북한산 No.38, 린넨에 유채, 200x210cm, 2015



북한산 No.38, 린넨에 유채, 200x210cm, 2015

리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유화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했던 정주영 작가 개인전이 서울 시간동 갤러리현대에서 열고 있다. '풍경의 얼굴' 전에는 북한산 바위들을 묘사한 30여 점의 '산(山)-풍경' 연작과 작가가 자신의 손을 부분적으로 묘사한 10여 점의 '무제' 회화가 나온다.

리넨에 넓적하고 거친 붓으로 그려낸 산과 바위는 어롱어롱하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물기라고는 없는 아마 천을 수십 차례의 거친 붓질이 쓸고 지나간 흔적이 선명하다. 어롱어롱한 풍경에서는 산의 다양한 얼굴을 읽어내고 숨겨진 여러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우연히 전시장에 들른 작가의 지인은 "분명히 낮익은 인수봉인데 낯설게 느껴진다. 기괴하다"는 평을 남겼다고.

이는 "산과 바위의 형세를 그림으로 옮기며 인간의 인식과 감각을 투사하는 어떠한 원형으로서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작업 노트, 2017)이다.

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체 같기도, 동물 같기도, 사물 같기도 하지만 조금만 위치를 달리해서 보면 그 형상들도 금방 흩어진다"면서 "산의 일부가 어떤 형상을 닮았다기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보고 싶은가의 문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 대상이란 것이 사람마다 달리 보이며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나 시기,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설명이다.

작가는 '무제' 회화를 두고 "이 연작을 마무리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손을 댔는데 바위처럼 굴곡이 있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의 일부를 강조해 작업하는 이유로 "부분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체를 다시 낯설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시일정(장소)** 12월 24일까지(서울 시간동 갤러리현대)  
**관람 무료**  
**☎** 02-2287-3500



굵은 선은 물결로 살아나고



이아남, 단발령망금강

### << 디지털아트로 만나는 해원-겸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각각 조선 풍속과 풍경의 대가였던 해원과 겸재 정선(1676~1759)의 그림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꾀한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바람을 그리다 : 신윤복·정선' 전을 통해 선보인다.

7점의 신윤복·정선 작품을 토대로 제작해 13m의 미디어월에 간 2차원 애니메이션, 작가 이아남이 정선의 명작 '단발령망금강'(1747)과 '금강내산'(1747)을 모티브로 만든 미디어아트 등을 만날 수 있다.

17점의 디지털아트 작품들은 이채롭지만, 440평의 전시장에서 가장 발길이 오래 머무는 곳은 두 거장의 작품 진본이 전시된 공간이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 제135호인 신윤복 '해원전신첩'과 보물지정 예고 작품인 정선 '해악전신첩' 등 총 56점이 나온다.

**전시일정(장소)** 2018년 5월 2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박물관)  
**관람**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 02-2153-0000

### >> 석고 조각 작가 최의순 개인전

25년 가까이 석고 조각에 몰두해 온 원로 작가 최의순이 서울 평창동 김중영미술관에서 15년 만의 개인전을 열고 있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제작한 조각 18점과 드로잉 43점이 나왔다. 작가는 철사로 뼈대를 만든 뒤 갠 석고를 발라 형태를 만들어가는 직조(織造) 방식으로 보통 작업한다.

단시간에 완성하기에 손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치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틀이 존재하지 않기에 똑같은 조각을 찍어낼 수도 없다. 김중영미술관은 "작가가 직조 석고 작업을 고수하는 이유는 조각 예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공간과 볼륨의 문제에 천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가는 빛을 작품에 한 요소로 활용하는데, 매우 독특하다"면서 "관객은 빛이 작품을 투영하며 형성하는 새로운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김중영미술관이 2010년부터 매년 가을 미술계에 귀감이 될 원로 작가 1명을 선정해 소개하는 초대전이다.

**전시일정(장소)** 12월 10일까지(서울 평창동 김중영미술관)  
**관람 무료**  
**☎** 02-3217-6484



그대를 무엇이라 부르오리까(김태관 신부), 23x30x37cm, 석고, 2009



像 012, 70x40x70cm, 석고, 2012



1866, 52x33x90cm, 석고, 2016

# 꾼

## '사기꾼 잡는 사기꾼' 그린 범죄오락 영화



검사와 사기꾼이 손잡고 최대의 금융 사기꾼을 잡으려는 내용의 범죄오락 영화다. 지난해 개봉했던 '마스터'나 '조작된 도시' '원라인'처럼 케이퍼무비(범죄 계획과 실행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화)의 전형을 따른다. 빠른 전개와 속임수, 반전, 개성 강한 캐릭터 등 미덕이 될만한 요소를 고루 갖췄다. 영화는 최대의 사기꾼 장두철에게 돈을 떼인 서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절망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곧이어 장두철이 해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후 8년의 세월이 흐른다.

사기꾼만 골라 사기를 치는 지성은 장두철이 살아있다고 믿고, 과거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박희수에게 공조를 제안한다. 여기에 박 검사의 비선 조직인 '사기꾼 3인방' 고석동, 춘자, 김 과장이 합세하고, 장두철을 유인하기 위한 판을 짠다. 박희수는 장두철 검거 이외에 또 다른 비밀 작전을 세우고, 지성 역시 그만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락을 꾸민다. 두 사람이 펼치는 두뇌 플레이를 따라잡으려면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할 정도다. 둘이 그리는 '빅 픽처'는 마지막에 가서야 실체가 드러난다.

영화는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마스터'나 '쇠파리'

등에서 다른 소재지만, 중층적인 이야기 구조로 변주를 줬다. 아귀가 딱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만듦새는 무난한 편이다. 다만 속고 속이는 패턴이 반복되는 데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전개가 다소 느려지면서 짜릿한 반전의 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점은 아쉽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다. 지성 역을 맡아 극을 이끄는 현빈은 분장과 목소리 변조를 통해 상대를 감쪽같이 속이며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의심을 해소하면 확신이 된다"는 신념과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비상한 두뇌를 지닌 인물로 나온다.

지난해 드라마 '굿 와이프'에서도 검사 역을 맡았던 유지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랄한 검사로 나온다. 배성우는 유머 담당이다. 특유의 넉살로 웃음을 불어넣는다. 스크린에 데뷔한 나나도 자신의 매력을 십분 발휘했다.

**감독** 장창원  
**출연** 현빈 유지태 배성우 박성웅 나나 안세하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11월 22일



### 시크릿 레터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자 스텐트우먼으로 일하는 에이미는 천체물리학 교수 에드와 은밀한 사랑을 나눈다. 자신과 동갑내기 딸을 둔 남자와의 6년에 걸친 사랑은 역설적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된다. 에드가 강의하기로 한 수업시간에 별안간 그의 부고가 날아든다. 대신 강단에 선 동료 교수가 며칠 전 에드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에드로부터 온 이메일 알림이 울린다.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  
**출연** 제레미 아이언스, 올라 쿠릴렌코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1월 23일

사랑하는 연인의 믿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 계속 전해지는 비밀스러운 편지들로 시작하는 로맨스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과 영화음악의 명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다시 손을 잡았다.



### 빛나는

사진작가로 이름을 날리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나카모리는 영화의 음성해설 제작을 위한 모니터링 모임에 참여한다. 그러나 초보 작가 미사코의 해설은 마뜩찮다. 주관이 개입된 화면 해설은 영화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고 나카모리의 자존감마저 건드린다. 반대로 주관을 배제하고 관객의 감정과 상상력에 의미를 맡기는 해설은 무척임해 보인다.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가 영화 음성해설 작가와 만나 희망을 얻게 되는 내용의 멜로드라마다. 관객은 영화 내내 이어지는 미사코의 해설을 들으며 장애인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일본영화의 거장으로 꼽히는 가와세 나옴 감독 특유의 서정적 연출과 유려한 영상미가 빛을 발한다.

**감독** 가와세 나옴  
**출연** 나가세 마사토시, 미사키 아야메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1월 23일



### 역모·반란의 시대

1728년 영조 4년, 소론이 주도했던 반란인 이인좌의 난을 모티브로 한 무협 시대극. 소재만 따왔을 뿐 영화 속 이야기는 허구다. 역모를 실행하던 이인좌가 붙잡혀 죽기 전까지 하루밤의 일을 상상력으로 그렸다. 주인공은 의금부 포졸로 좌천당한 '조선 최고의 검' 김호. 이인좌와 5인방 무사집단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 침입하자, 간신배들로 가득 찬 궁궐에서 김호가 고군분투하며 홀로 역적들과 맞선다. 김호와 역적들은 옥사와 궁궐 곳곳을 누비며 맨몸 결투는 물론 장검, 활, 몽둥이 등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 치열하게 싸운다.

**감독** 김홍선  
**출연** 정해인 김지훈 조재윤 이원종 박철민 홍수아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11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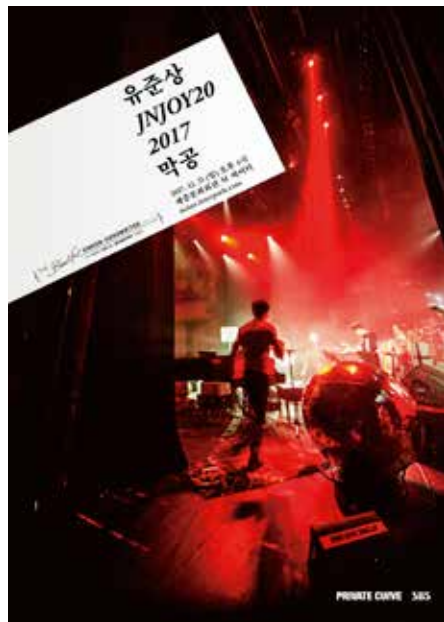


### 오리엔트 특급 살인

세계적 명탐정 에르콜 포와르는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오리엔트 특급열차에 탑승한다. 폭설로 열차가 멈춰선 밤, 승객 한 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용의자 13명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췄다. 포와르가 미궁에 빠진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추리 스릴러다. 포와르 탐정 역에 연출까지 맡은 케네스 브래너를 비롯해 페넬로페 크루즈, 조니 뎀 등 호화 출연진을 내세웠다.

**감독** 케네스 브래너  
**출연** 케네스 브래너, 페넬로페 크루즈, 윌렘 대포, 주디 덴치, 조니 뎀, 미셸 파이퍼, 데이비 리들리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1월 29일

# 크리스마스 시즌 재즈 공연 풍성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달콤한 선율의 재즈 공연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13명의 재즈 뮤지션들이 12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종로구 JCC아트센터에서 '블루크리스마스 재즈 콘서트'란 제목으로 공연한다. 8~9일에는 트럼페터 진 킴의 '진킴 더 재즈 유닛'이, 15~16일에는 베이시스트 황호규의 '황호규 콰텟'이, 22일에는 피아니스트 송영주가 '첫 솔로 피아노'를, 23일에는 '송영주 콰텟'이 공연을 펼친다. 특히 황호규는 세계적인 권위의 재즈 교육기관인 '델로니아스 몽크 재즈 인스티튜트' 출신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동문인 색소포니스트 가드윈 루이스와 피아니스트 빅터 굴드를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재즈 밴드 프렐류드는 12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홀리데이'(Holiday)란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공연을 연다. 프렐류드는 고현안(피아노), 노정진(색소폰), 최진배(베이스), 한웅원(드럼) 등 남성 4인조로 구성된 밴드로, 이번 공연에서 핑크·왈츠·블루스·스윙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재해석한 따뜻하고 행복한 캐럴을 선보일 예정이다. 크리스마스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과 바이올리니스트 강이체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첫 합동공연을 한다. 윤석철은 일렉트로닉과 힙합 등 다양한 요소를 재즈에 접목한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그를 중심으로 한 '윤석철 트리오'의 리더로 활동 중이며, 자이언티나 크러쉬 등 대중가수들과도 협업해왔다. 강이체는 실험적인 사운드부터 대중적인 멜로디까지 소화하는 싱어송라이터다. 배우로 친근한 유준상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자신이 이끄는 밴드 'J n Joy 20'과 '2017 막공'이라는 타이틀로 공연한다. J n Joy 20은 올해 서울재즈페스티벌 무대에 서고 소극장 콘서트를 열어 팬들과 꾸준히 호흡해왔다.



**공연일정(장소)** 블루크리스마스 재즈 콘서트 12월 8-23일 매주 금·토요일(서울 종로구 JCC아트센터) / 프렐류드의 홀리데이 12월 18일 오후 8시(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윤석철·강이체 합동공연 12월 25일 오후 7시(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유준상의 2017 막공 12월 31일 오후 6시(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티켓** 전석 5만원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 전석 6만6천원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 02-549-5520 / 02-6339-1232 / 02-563-0595 / 02-563-0595

## >> '방탄소년단 피쳐링' 미국 래퍼 디자이너 첫 내한

미국 힙합계에서 '괴물 신인'으로 불리는 래퍼 디자이너(Designer·20)가 12월 21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빅탑 아레나에서 첫 단독 내한 공연을 한다. 뉴욕 출신의 디자이너는 중독성 있는 추임새와 특유의 랩으로 미국 힙합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특히 2015년 아이튠스에 공개한 후 2016년 2월 정식 데뷔 싱글로 재발매한 곡 '판다'(panda)는 당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리아나의 '웍'(work)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해 큰 화제가 됐다.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스트리밍 송'(Top Streaming song)과 '톱 랩 송'(Top Rap Song) 등 2관왕을 차지한 이 곡은 2016년 총 7억 회 이상 재생됐고 현재까지 유튜브 누적 조회 수는 2억5천 회에 이른다. 디자이너는 또 최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곡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버전에 유명 DJ인 스티브 아오키와 함께 피쳐링으로 참여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19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21일 오후 8시(잠실종합운동장 빅탑 아레나)  
**티켓** 스탠딩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 02-3141-9226



## ♣ 사이 연말 밤샘 콘서트 '올나잇스탠드 2017'

'공연의 신' 사이(본명 박재상)가 12월 22~24일 부산 사직체육관, 28~3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올나잇 스탠드 2017-밤샘의 갓사이'를 연다. '올나잇 스탠드'는 2003년 시작된 사이의 대표 브랜드 콘서트로 히트곡 페이데이와 화려한 퍼포먼스, 장시간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다. 올해는 모든 공연이 밤 11시 42분 시작되는 밤샘 무대여서 '밤샘의 갓사이'란 부제가 붙었다. 사이는 올해 5월 8집 '4X2=8'을 발표해 타이틀곡 '아이 러브 잇'(I LUV IT)으로 국내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또 여름에는 5년 만에 '흠뻑쇼'란 타이틀로 공연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일정(장소)** 부산 12월 22-24일(부산 사직실내체육관)·서울 12월 28-31일(잠실실내체육관)  
**티켓** VIP석 16만5천원, 스탠딩 SR석·SR석 13만2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 1544-1555



## ♣ 재미교포 뮤지션 클라라C·샘 옥 내한 공연

미국 인디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클라라C(한국명 정재연)가 12월 1일 서울 KT&G상상마당 홀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클라라C는 2010년 아시안 아메리칸 탤런트쇼 '콜라보레이션'(Kollaboration)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박재범·덤파운드·샘 옥 등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엠넷 슈퍼스타K 시즌8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클라라C의 대표곡 '오프비트'(Offbeat)와 '더 카멜 송'(The Camel Song)은 SBS TV '괜찮아 사랑이야'와 JTBC '청춘시대'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로 쓰이기도 했다. 재미교포 2세인 한국계 뮤지션 샘 옥도 새 앨범 '스타일 북'(Style Book) 발매를 기념해 12월 16~17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펼친다. '스타일 북'에는 힙합, R&B, 재즈, 어쿠스틱, 펑크, 솔, 가스펠을 하나로 조화한 이른바 샘 옥 특유의 '스타일 팝'이 고루 담겼다. 샘 옥은 2014년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 출연과 2015년, 2016년 두 번의 단독 내한 콘서트로 한국 팬들과 만나 부드러운 음색으로 사랑받았다.

**공연일정(장소)** 클라라C 12월 1일 오후 8시(서울 KT&G상상마당 홀대) / 샘 옥 12월 16-17일(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티켓** 3만3천원 / 지정석(1층) 7만7천원, 지정석(2층) 6만6천원  
☎ 02-2014-2023 / 02-446-2690

## ‘앙리할아버지와 나’ 고집불통 할아버지와 ‘상큼발랄’ 대학생의 동거



프랑스 연출가 겸 작가인 이반 칼베라크의 작품으로 2012년 프랑스에서 초연됐고 2015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됐다. 원제는 '앙리할아버지와 대학생'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앙리할아버지와 나'로 이름을 바꿨다. 고집불통 70대 할아버지 '앙리'와 상큼발랄한 20대 대학생 '콘스탄스'가 동거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극이다. 30년 전 아내를 잃고 프랑스 파리에서 혼자 사는 78살의 전직 회계사 '앙리'는 까칠하고 도도하며 괴팍한 할아버지다. '콘스탄스'는 발랄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대학생이다. 이야기는 앙리의 집에 콘스탄스가 룸메이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다. 콘스탄스는 흡연도, 애완동물도, 애인 출입도 금지되는 까다로운 입주 조건을 통과했지만, 첫날부터 쫓겨날 위

기에 처한다. 연극은 세대·가족 간 갈등, 청년실업, 청년 세대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등 사회문제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낸다. 극 중 앙리 할아버지가 콘스탄스에게 건네는 조언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격려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는 원로배우 이순재와 신구가 '앙리'役に 더블캐스팅돼 화제를 모았다. TV와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소담과 김슬기는 '콘스탄스'역에 더블캐스팅돼 대선배들과 호흡을 맞춘다. 앙리의 아들 '폴'역에는 이도엽과 조달환이, 폴의 아내 '발레리'역에는 김은희와 강지원이 출연한다. 연출 이혜제.

**공연일정(장소)** 12월 5일~2018년 2월 11일  
(서울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 02-744-7661

### >> '아 유 오케이?' & '오후만 있던 일요일' 연극연출가 故 김동현을 추모하다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연극연출가 김동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를 추모하는 공연. 고인은 2015년 11월 '맨 끝줄 소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자병이 악화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아 유 오케이?'는 고인이 이끌었던 극단 코끼리만보의 공동창작 작품을 재구성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든 연극이다. 고인은 생전 극단 단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작품을 만드는 공동창작 형태의 작품을 많이 했다. '아 유 오케이?'는 그 중 '말들의 무덤'과 '착한사람, 조양규' '우리 말고 또 누가 우리와 같은 말을 했을까?' '매일 만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사랑했었다' 같은 공동창작작품에 미발표 유작인 '¿Mrs MRI?'의 일부를 더하고 또 새로 창작한 내용을 덧붙여 만든 작품이다. 고인의 부인인 손원정과 이지영이 함께 연출한다. '오후만 있던 일요일'은 여러 작품을 고인과 함께했던 배삼식 작가의 신작이다. 김동현 연출을 '오후만 있던 일요일'에 눈을 뜬 사람으로 은유하는 작품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고 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이성열, 최용훈, 윤한솔 연출가가 각각 연출을 맡는다.

**공연일정(장소)** '아 유 오케이?' 12월 1~10일·'오후만 있던 일요일' 12월 15~25일(이상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티켓** 전석 3만원  
☎ 070-7918-9077



### <<더 헬멧 두 곳에서 펼쳐지는 4개의 연극

연극 '모범생들'과 '씨어터 RPG' 등에서 호흡을 맞춘 지이선 작가와 김태형 연출 콤비의 창작 신작. '하얀 헬멧'을 키워드로 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공간에서 대한민국 서울과 시리아 알레포 두 곳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4개의 극이 펼쳐진다. 서울 룸에서는 백골단과 학생 전투조, 알레포 룸에는 시리아 내전 구호단체 '화이트 헬멧'과 아이의 입장에서 각각 이야기가 전개된다. 각각의 공간은 관객 80명이 입장하는 빅 룸과 20명이 입장하는 스몰 룸으로 나뉜다. 각 공간에서는 공연 중 일어나는 소음과 대사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관객은 벽 너머의 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느낄 수 있다. 관객은 1987~1991년 서울과 2017년 알레포 중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시공간에서 두 개의 방 중 하나를 선택해 공연을 보게 된다. 4개의 공연은 이어지거나 통일된 형식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든지 상관없다. 이석준, 정원조, 양소민, 이호영, 정연, 김도빈, 손지윤, 이정수, 윤나무, 한송희 출연.

**공연일정(장소)** 12월 19일~2018년 3월 4일  
(서울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  
**티켓** 전석 3만원  
☎ 02-541-2929



## 뮤지컬 '모래시계' 창작 뮤지컬로 귀환한 인기 드라마



1995년 큰 인기를 끌었던 SBS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뮤지컬로 변신한다.

'모래시계'는 당시 '귀가시계'로 불릴 만큼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다. 최고 시청률은 64.5%에 달했으며 당시 신생 방송사인 SBS가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받는 작품이다.

연출 조광화를 필두로 김문정 음악 수퍼바이저, 오상준 작곡가, 극작가 오세혁·박해림 등 국내 유명 창작진이 의기투합해 24부작의 드라마를 2시간 반짜리 무대로 옮겼다.

조광화는 "굵직한 스토리는 지키는 선에서 압축을 시도했다"며 "주요 인물 세 사람의 개별 스토리는 과감히 생략했지만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 갈등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배우 한지상, 신성록, 김우형이 폭력 조직 중간 보스에서 카지노 사업의 대부로 성장하는 '태수' 역을 연기한다.

태수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굴곡을 함께하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인물이다. 원작인 동명의 SBS TV 드라마(1995)에서는 최민수가 이 역을 맡아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겼다.

고현정이 연기했던 '헤린' 역은 배우 조정은, 김지현, 장은아가 번갈아 연기한다. 카지노 대부 윤재용 회장의 외동딸로 태수와 사랑에 빠지는 역이다.

태수의 절친한 친구이자 굳건한 신념을 지닌 검사인 '우석' 역은 박건형, 강필석, 최재용이 맡았다.

다만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최민수)와 같은 일부 대사는 들을 수 없다. 무대 분위기가 다소 유치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우우우~'로 시작하는 드라마 테마곡 '백학'도 원작의 향수를 불러올 정도로만 살짝 쓰인다.

김문정 음악감독은 "청년들의 열정과 우정, 번뇌를 느낄 수 있는 서정적 멜로디를 무대와 19인조 오케스트라에 맞게 새롭게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사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는 "격변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안타깝게 얽혀버린 세 주인공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라며 "20년이 지난 드라마임에도 최근의 시국과 닮아있는 측면이 있어 다시 주목된다"고 소개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5일-2018년 2월 11일(서울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티켓**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 1544-1555



### 《선우예권, 반 클라이번 우승 후 첫 독주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콩쿠르 우승 이후 첫 국내 독주회를 연다. 이는 콩쿠르 우승 전 예정됐던 12월 20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의 독주회 티켓이 콩쿠르 우승 소식과 함께 매진됨에 따라 추가 기획된 것이다.

선우예권은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차이콥스카·쇼팽·퀸엘리자베스에 견줄만한 권위를 인정받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지난 6월 우승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것은 그가 최초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이 국내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터라 선우예권의 우승에도 음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들로 독주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12월 15일 콘서트홀 공연에서는 그레인저의 '잠미의 기사' 중 사랑의 듀엣,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9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연주한다. 12월 20일 IBK챔버홀 공연에서는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제6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30번 등이 연주된다. 라벨의 '라 발스'는 양일 프로그램에 모두 포함됐다.

**공연일정(장소)** 12월 15일 오후 8시(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 02-338-3816



### 《게르기에프-마린스키 오케스트라 5번째 내한 공연

러시아 가장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섯 번째 내한 공연을 연다.

게르기에프는 1978년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와 첫 호흡을 맞춘 뒤 1988년 수석 지휘자, 1996년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이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연주단체로 끌어올렸다.

차이콥스키와 쇼스타코비치 등 자국 작곡가의 작품에서 독보적 기량을 선보이며 침체한 러시아 음악계를 부활시킨 그에게는 국민적 지지와 함께 '러시아 차르(황제)'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

2005년 마린스키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대동하고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4부작(4일간 총 16시간) 공연으로 한국 음악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올해 내한 공연은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과 연주자 진용을 그대로 옮겨 왔다. 프로그램도 러시아 정통 레퍼토리다.

전반부에는 글린카의 '무슬란과 류드밀라 서곡'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연주된다.

협연자로는 1998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둔 뒤 수차례의 한국 공연에서 강력한 타건과 거구에서 나오는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호평을 받은 데니스 마추예프가 나선다.

후반부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다.

**공연일정(장소)** 12월 12일 오후 8시(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석 23만원, S석 16만원, A석 10만원, B석 6만원  
**☎** 02-599-5743

